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12월26일 광주서 김장훈과 합동공연하는 싸이

"두번의 군생활은 삶의 자양강장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 32)는 군대 훈련소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딸 쌍둥이 아빠인 그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꿈꾸기조차 싫다는 경험을 진짜로 한 것이다.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지만, 재입대 판결을 받아 2007년 12월17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7월 제대한 그를 27일 아이비의 쇼케이스 현장에서 다시 만났다. 아이비의 3집 타이틀곡 '터치 미(Touch Me)'를 쓴 작곡가로 참석한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사람이 간사한 게, 민간인이 됐다는 기분이 아니라 벌써 내무반 시절이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가끔 피곤하고 일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에서 입대일 사진을 봐요. 그러면 삶에 전투력이 생기죠. 마치 자양강장제 같아요."

"피곤할 땐 입대사진 보죠 그러면 삶에 전투력 생겨"

세상에 대한 원망은 없었냐는 물음에 그는 짓궂다는 듯 웃음부터 지었다.

"사람들이 군대 두 번 갔다 왔다 하면 훈련소 두 번으로 정정해 줘요. 사실 횟수보다 한 남자가 32년을 사는데, 20-30대에 산업기능요원 35개월, 현역 20개월 총 55개월을 국방의 의무로 보냈다는 게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제가 겪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중에게 희로애락을 대신 전달해주는 게 우리 직업이라면 저는 무기가 많아지고 튼튼해진 거니까요."

복무기간 동안 의지가 됐던 건, 가족 다음으로 가수 김장훈이었다. 김장훈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와서는 군대에서 시간을 보낼 '타임 테이블'을 짜줬고, 싸이의 부대를 위한 위문공연도 열어줬다.

싸이는 "장훈이 형은 외줄타기를 하는 나를 위해 밑에서 그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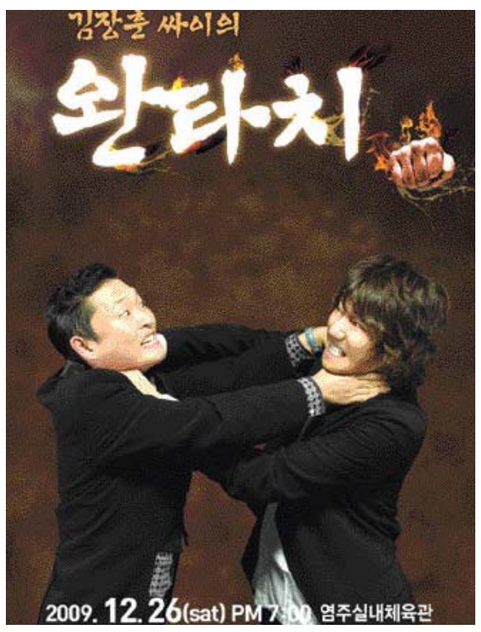
공연계를 대표하는 두 가수는 최근 공연기획사 '공연세상'을 설립해 광주(12월 26일)를 비롯, 전국 25개 지역을 도는 합동공연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워'를 개최한다.

"저도 완벽주의자인데 장훈이 형은 저보다 다섯 배나 완벽주의자예요. 미친 완벽주의자죠. 형은 연출자로서 공연을 제작하는 모든 공정을 100% 꿰뚫고 관리 감독해요. 저는 지금껏 공동연출을 많이 해 제가 모든 공정을 알지는 못했죠. 형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이 작업 초반 부딪힌 건 김장훈이 '만약'의 상황을 너무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와이어를 타고 하늘을 날다 크레인 접속 불량으로 떨어지면?' 등등….

싸이가 공연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는 건, 군대의 영향이 컸다. "2008년 1월23일 경기도 광명시 52사단에 배치됐다가 국방부 명령으로 차출돼 올해 1월13일부터 홍보지원대에서 '연예사병'으로 복무했다"는 그는 국군방송 위문열차 첫 무대의 기억을 떠올렸다.

"2008년 8월 위문열차가 인접 부대에 왔을 때 처음 섭외가 왔어요. 그날 무대에 오르기 전



"장훈이 형은 완벽주의자 공연 모든 공정 관리 감독"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저는 사연이 많게 입대한 놈이고, 관객은 100% 군인이고, 주최는 국방부잖아요. '야유를 받으면 어떡하나', '반응이 안 좋으면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무대 오르는 게 무서워 역대 제가 선 무대 중 가장 비장했죠."

그러나 함성은 비명에 가까웠고, 군인끼리 통하는 뭔가가 찡하게 전해졌다고 한다. 그날 무대를 통해 싸이는 '내게 관객이 있는데, 훨씬 고통스러운 일도 참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싸이는 연예인이란 주위에서 박수를 쳐주니 들떠서 산다고 했다. 자신도 그랬다. 그러나 군생활을 통해 들뜬 마음을 가라앉혔고, 정체성도 찾았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 가정을 지켜준 아내와 두 딸에게는 여전히 미안하다.

"제가 홀몸이었으면 긍정적으로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있기에 훈련소를 두 번째 들어간 날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은 안 했어요. 들어가서 딱 하루, 마음속으로 울었죠. 제 공백기 동안 아내가 딸들에게 제 사진과 음악, 공연 DVD를 보여주며 아빠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딸들이 국군의 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아내가 돌아왔다' 조민기

"막장드라마? 천만에요 일어날 법한 일 들이죠"

"드라마 이름에 '아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장 취급하는 것은 출연 배우로서 거부하고 싶어요"

다음 달 2일 첫선을 보이는 SBS 새 일일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극본 이혜선, 연출 이용석)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내를 그리워하는 지고지순한 부잣집 아들 윤상우 역을 맡은 조민기는 27일 오후에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과 '두 아내'에 이어 SBS의 세 번째 '아내 드라마'로 아내의 복수를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또 다른 막장 드라마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요즘 ('아내가 돌아왔다'는)

또 얼마나 막장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청정 드라마'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시청자들이 무슨 재미를 느끼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어날 법한 이야기에서 첨가되는 장치들이 과할 경우 막장이라고 하는데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타당성 있는 드라마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에덴의 동쪽'과 '선덕여왕' 등 출연 드라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조민기는 이번 드라마의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열심히 하면 시청자들이 저절로 브라운관 앞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배우는 시청률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때마다 나오는 대본에 책임을 다하고 다른 배우들과 힘을 합쳐서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전작의 시청률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번 드라마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은 없다. 시청률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노심초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편 조민기는 비교적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두 여배우, 강성연과 윤세아와 함께 멜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 민망하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제는 제 스스로 멜로 연기가 민망하지만 성연 씨와 세아 씨와 함께 연기하게 돼 행복하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가면 약을 안 먹어도 젊어지는 것 같다.(웃음) 제 연기 인생의 마지막 멜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촬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토리온' 토크쇼 MC

이성미·박미선 발탁

개그우먼 이성미와 박미선이 내달 16일 자정 첫선을 보이는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랭킹 토크쇼 '친절한 미선씨'의 MC로 발탁됐다.

연예계의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 이성미와 박미선은 그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적은 있지만, TV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친절한 미선씨'는 스토리온의 메인 타깃인 30~45세 기혼 여성들의 공감을 끌어낼 흥미로운 주제와 볼거리를 다룬다.

'친절한 미선씨'는 이성미의 '미'와 박미선의 '선'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